

## 요한나 슈피리 (1827~1901)

스위스의 여류 아동 문학가. 취리히 부근의 작은 마을에서 의사의 딸로 태어났다. 이 책의 주인공 하이드처럼, 그녀도 유년 시절 취리히와 알프스를 오가며 도시와 전원 생활을 두루 체험했다고 한다. 슈피리는 1871년 마흔네 살의 늦은 나이로 첫 작품을 썼다. 그 후로 주로 어른들을 위한 글을 써 오다가, 1878년에 《실향 Heimatlos》이라는 모음집에 아이들을 위한 글 두 개를 실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1879~1895년 사이 전16권의 《어린이와 어린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를 출간하기에 이른다. 《하이드》도 바로 그 중 하나로 세계 아동문학에서 그녀의 이름을 가장 빛나게 만든 작품이다.

1884년에 하나뿐인 아들이 29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고 남편도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이는 그녀가 소설 한번 돈을 자선단체에 많이 기부하는 계기가 된다. 남편과 아들이 죽은 후 요한나 슈피리는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다가 1901년 7월에 눈을 감았다. 1968년 취리히에 슈피리 재단이 설립되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리고 있다.

「하이드」는 작가의 고향인 알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갓난아기 때 부모를 잃은 하이드는, 다섯 살이 되었을 때, 완고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할아버지와 함께 알프스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몇 년 뒤, 하이드는 소아마비에 걸려 걸을 수 없는 부잣집 딸 클라라의 말 상대가 되어 주기 위해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된다. 하이드와 친구가 된 클라라는 점차 성격이 밝아지지만, 하이드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몽유병에 걸린다. 결국 하이드는 알프스 계곡으로 다시 돌아와 페터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품에 안겨 다시 예전의 행복한 생활을 되찾는다. 그 후 약속했던 클라라가 찾아오고 페터와 하이드의 정성에 클라라

는 마침내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난다. 하이디를 비롯한 등장 인물들의 순수한 마음과 알프스의 때문지 않은 자연이 그와 정반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오늘날의 독자로 하여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심을 되찾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 제 1 장 ] 산 위의 집**

**p. 12-13** 알프스의 더운 6월 아침이었다. 하이디는 테테 이모 뒤를 따라 갔다. 그들은 마을을 지나 산 위로 걸어가고 있었다. 하이디는 자기 옷을 모두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더웠다. 그녀는 새로운 집으로 그 옷들을 가져가야 했다. 그녀는 겨우 여섯 살이었다.

하이디와 이모가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동네 사람 하나가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다.

“테테, 이 아이가 당신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 두고 간 고아인가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이 아이가 하이디예요. 할아버지와 살도록 그녀를 데려가고 있어요. 저는 도시에서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애를 돌볼 수가 없어요.” “가엾은 하이디.”라고 그 동네 사람이 말했다. “아무도 그 까다로운 노인네와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p. 14-15** 테테 이모가 그 마을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하이디는 페터라는 소년을 만났다. 그 아이는 마을의 목동이었다. 매일 아침 페터는 염소들을 데리러 마을에 왔다. 그는 염소들을 산으로 데려갈 것이었다. 하이디는 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무거운 옷 때문에 그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속옷만 빼고 모두 벗어 버렸다. 그런 다음 페터 뒤에서 춤을 추었다. 페터는 하이디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두 아이는 웃기 시작했다.

테테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네 옷들은 어디 있냐?”라고 그녀가 물었다. “ 옷은 필요 없어요!”라고 하이디가 말했다. “염소처럼 자유롭게 뛰놀고 싶어요!”

**p. 16-17** 테테 이모는 하이디를 꾸짖고는 그녀의 옷을 가져오도록 페터를 보냈다. 그들은 한 시간쯤 더 걸었다. 산꼭대기 근처에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이 있었다. 그 노인은 집 앞에 앉아 있었다.

하이디는 그에게 뛰어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는 하이디의 손을 잡고 그녀를 뺨히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삼촌.” 하고 테테 이모가 말했다. “이제 하이디는 삼촌하고 살아야 해요.” 그녀는 자기가 왜 더 이상 그 아이를 돌볼 수 없는지 설명했다. 노인은 화를 냈다. “당장 여기서 꺼져!”라고 그는 테테 이모에게 고함을 쳤다. 테테 이모는 하이디에게 얼른 작별 인사를 하고는 떠났다.

**p. 18-19** 하이디는 새로 살 집을 둘러보았다. “전 어디서 자나요?”라고 하이디가 물었다. “아무데나 너 좋은 데서 자거라.”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하이디는 침대 뒤에 있는 사다리를 보았다. 그녀는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엔 새로 말린 건초들이 가득했다.

“전 이 위에서 잘래요.”라고 하이디는 기뻐하며 말했다.

하이디는 어디든 할아버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새 의자를 만들자 그것을 구경했다. 해가 지고 있을 때 하이디는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염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있던 페터였다. 할아버지엔 염소 두 마리가 있었다. 염소들의 이름은 데이지와 더스키였다. 하이디는 첫눈에 그 염소들이 마음에 들었다.

**p. 20-21** 다음날 아침, 페터의 휘파람 소리가 하이디를 깨웠다. 그녀는 페터와 함께 갈 준비를 했

다. 그녀는 신이 났다. 산은 매우 아름다웠다. 하이디는 꽃을 꺾고 염소들을 뒤쫓아 다녔다. 페터는 그녀에게 염소들의 이름을 모두 가르쳐 주었다. 하이디는 어린 염소 한 마리가 어미를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슬펐다. 그녀는 그 염소를 특별히 잘 돌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해가 지고 있었다. 산꼭대기 너머로 황금빛 노을이 펼쳐졌다. “페터!” 하이디가 소리쳤다. “산에 불이 났어!” “걱정하지 마!”라고 페터가 대답했다. “그건 매일 있는 일인 걸.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는 뜻이야.”

**p. 22-23** 하이디는 여름 동안 매일 페터와 산에 올라갔다. 그녀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다. 그녀는 새만큼이나 자유로웠다. 그러나 가을이 오자 할아버지는 그녀를 집에 있게 했다. 그는 강풍이 그녀를 산에서 날려 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치즈 만드는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겨울이 왔고 많은 눈이 내렸다.

겨울에 페터는 학교에 다녔다. 어느 날 페터가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는 하이디에게 자기 할머니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하이디는 가고 싶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이 너무 깊어 쌓였다고 말했다.

**p. 24-25** 며칠 후 마침내 눈이 그쳤다. 해가 나자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밖에 나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디를 자신의 썰매에 태웠다. 그 썰매는 아주 빠르게 산 아래로 질주했다. 할아버지는 페터네 작은 오두막 앞에 썰매를 세웠다.

하이디는 바느질을 하고 있던 한 할머니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라고 하이디는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하이디의 손을 만졌다.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왜 보실 수가 없어요?”라고 하이디가 물었다.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는 있단다.”라고 할머니는 친절하게 말했다. 하이디는 남은 겨울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다. 이따금 할아버지가 와서 할머니의 오두막집에 있는 창문과 의자들을 고쳐 주었다.

## **[ 제 2 장 ] 하이디, 프랑크푸르트에 가다**

**p. 30-31**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하이디의 두 번째 즐거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어느 날 마을 목사가 오두막을 찾아 왔다. 그는 하이디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다. “하이디는 학교가 필요없소.”라고 할아버지는 주장했다. “그 애는 이곳에서 염소들과 새들과 함께 커갈 거요. 그것들은 그 아이에게 어떤 나쁜 생각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아이는 읽기와 쓰기를 배워야 해요!”라고 목사는 맞서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다음날 데테 이모가 오두막에 왔다. “하이디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느 부유한 가족과 살게 됐어요. 그 애는 그 집 딸의 말동무가 될 거예요.”

**p. 32-33** “하이디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라고 할아버지가 거칠게 말했다. “그 아인 프랑크푸르트에 갈 필요가 없어!” 데테 이모는 말했다. “이건 하이디가 학교와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기회예요.” “좋다!” 할아버지는 소리쳤다. “그럼 그 아이를 데려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거

라!”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떠나 프랑크푸르트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데테 이모는 그녀에게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께 갓 구운 빵도 가져다 드릴 수 있단다.”라고 데테 이모는 말했다. 이 생각에 하이디는 즐거웠다. 할머니는 딱딱한 검은 빵을 먹기가 힘들었다. 그들이 너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하이디는 페터에게 작별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p. 34** 데테 이모는 하이디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큰 저택으로 데려갔다. 세제만 씨는 부자가 그 집의 주인이었다. 그의 딸인 클라라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 지금은 로텐마이어 부인이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로텐마이어 부인은 하이디를 보았다. 그녀는 하이디의 낡은 옷과 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하이디의 이름도 싫었다. “하이디가 진짜 이름인가요?”라고 로텐마이어 부인이 물었다. “아이 엄마가 그녀에게 아델하이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라고 데테 이모는 설명했다. “그럼 우린 저 아이를 아델하이드라고 부르겠어요.”라고 로텐마이어 부인은 말했다.

나중에 로텐마이어 부인이 없을 때 클라라가 말했다. “네가 원한다면 널 하이디라고 부를게.” “상관없어. 내일이면 난 갓 구운 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라고 하이디가 말했다. “아니야. 넌 나와 함께 있으려고 이곳에 온 거야.” 하고 클라라가 말했다.

**p. 36** 저녁 식탁에서 하이디는 자기 접시 위에 놓인 갓 구운 빵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그 빵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하인인 세바스천이 하이디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전에는 이런 식으로 먹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로텐마이어 부인은 하이디에게 식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설명했다. 그러나 그녀가 얘기하는 동안 하이디는 잠이 들고 말았다.

잠에서 깬 때 하이디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다는 걸 기억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p. 38-39** 며칠 후 하이디는 클라라가 쉬고 있는 동안 산책을 나갔다. 세바스천은 그녀에게 교회 탑에서 도시 전체를 보라고 말했다. 그녀가 교회 탑 꼭대기로 올라가자 보이는 거라곤 건물들이 전부였다. 산도 나무도 없었다. 교회 관리인은 그녀가 실망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새끼 고양이들이 담긴 바구니를 보여 주었다. “가져가도 좋단다.”라고 그가 말했다. “내가 너희 집에 고양이들을 가져다주마.” “아, 네.”라고 하이디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 두 마리만 가져도 되나요?” 관리인은 하이디에게 두 마리를 주었다.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모두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로텐마이어 부인은 화가 나 있었다. “누가 너더러 집에서 나가도 좋다고 했니?”라고 그녀가 물었다. “아용.” 하고 하이디의 주머니에서 소리가 났다. 로텐마이어 부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고양이를 무서워했다.

**p. 40-41** 다음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세바스천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클라라가 바구니를 열자 고양이들이 사방으로 뛰어갔다. 한 마리는 로텐마이어 부인의 치마 위로 올라갔다. “세바스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이 작은 괴물들 좀 치우세요!”



그날 저녁, 로텐마이어 부인은 하이디를 벌주기로 결심했다.  
“를 차기운 지하실에 기두겠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클라라가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어떻게 할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시게 해요.” 로텐마이어 부인은 그 말에 동의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이디는 어떤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집이 몹시 그리워지고 있었다.

### 【 제 3 장 】 향수병

**p. 44-45** 세제만 씨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출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클라라를 만나서 기뻐했다. 그는 하이디를 만난 것도 기뻐했다. 그는 하이디와 클라라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로텐마이어 부인은 클라라의 아버지에게 하이디에 대해 나쁜 것들을 얘기했다. “제 생각에 저 꼬마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아이가 여기서 일으킨 문제를 아셔야 해요.”  
세제만 씨는 클라라에게 하이디에 대해 물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클라라는 고양이와 다른 일들에 대해 그에게 얘기했다. 세제만 씨는 웃었다. 그는 로텐마이어 부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하이디는 계속 있을 기예요. 그 이인 클리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p. 46-47** 며칠 후 세제만 씨는 또 다른 출장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인 세제만 할머니가 찾아 오셨다. 하이디에게 그녀의 얼굴은 아주 친절해 보였다. 하이디는 할머니를 아주 좋아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책 한 권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하이디에게 글 읽기를 도와주고 싶었다.  
그 책 속에는 산에서 염소들과 함께 있는 한 소년의 그림이 있었다. 그 그림은 하이디에게 페터를 생각나게 했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몹시 집이 그리웠다. 할머니는 하이디에게 글 읽는 것을 배우면 그 책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하이디는 글을 읽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하느님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p. 48-49** 1주일 후에 할머니는 하이디가 클라라에게 책을 읽어 주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기꺼이 하이디에게 그 그림책을 주었다. 할머니가 집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그녀가 떠난 후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세바스천은 매일 밤 문을 꼭 잠갔다. 그러나 아침이면 문이 열려 있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세바스천과 또 다른 하인이 자지 않고 문을 지켜보았다. 그때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다. 집은 아주 캄캄했고 문은 열려 있었다. 세바스천은 흰 옷을 입은 작은 사람이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집안에 유령이 있다고 말했다.

**p. 50-51** 이틀 후에 세제만 씨가 집에 왔다. 그와 그의 친구인 클라센 박사는 자지 않고 문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늦게 그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흰 옷을 입은 작은 사람이 나타났다. 하

이디였다. “너 뭐하는 거니?”라고 세제만 씨가 물었다. 하이디는 어리둥절했다. “잘 모르겠어요.”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매일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꿈을 꿉요.” “그 아이 문유병에 걸렸대네.”라고 클라센 박사는 말했다. “그 애는 심한 항수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유일한 치료법은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다음날 세제만 씨는 하이디를 집으로 보낼 준비를 했다. 하이디가 떠난다는 걸 알았을 때 클라라는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할머니와 함께 곧 하이디를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

#### 【 제 4 장 】 돌아온 하이디

p. 54-55 세바스천과 하이디는 그녀의 마을로 갔다. 마을사람들 모두 하이디가 할아버지와 살려고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하이디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페터와 할머니의 오두막이었다. 하이디는 울면서 할머니 무릎에 앉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갓 구운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그를 처음 봤을 때처럼 오두막 밖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하고 하이디가 소리쳤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두 팔로 껴안았다. 할아버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그래, 네가 돌아왔구나.”라고 그는 말했다.

p. 56-57 그날 밤 하이디는 다락에 있는 자신의 옛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녀가 오랜만에 가장 잠을 잘 잔 밤이었다.

다음날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깨웠다. “제일 좋은 옷을 입거라. 우리 교회에 갈 거란다.”라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은 마을에 있는 교회로 갔다. 할아버지는 목사에게 말했다. “겨울 동안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소. 하이디는 학교에 다닐 겁니다.” 마을사람들은 할아버지와 목사가 친구처럼 애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집으로 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이렇게 행복해 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단다. 하나님이 너를 내게 보내 주신 좋은 날이었어.”

p. 58-59 그 해 가을 페터는 종종 하이디에게 자신과 함께 염소를 몰자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너무 바쁘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두막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프랑크푸르트에서 찾아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누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클라센 박사였다. 할아버지와 하이디가 그를 맞이했다. “할머니와 클라라는 어디 있어요?”라고 하이디가 물었다. “나 혼자 왔단다.”라고 그가 말했다. “클라라가 아팠거든. 그 아이는 날씨가 더 따뜻해지는 봄이 되어야 여행을 할 수 있단다.” 하이디는 슬펐다. 그러나 클라센 박사를 만나서 기뻐했다.

할아버지는 클라센 박사에게 갓 짠 염소우유 한 잔과 황금색 치즈를 대접했다. “이곳은 클라라가 건강을 회복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겠어요.”라고 박사가 말했다.

p. 60 그해 겨울 하이디와 할아버지는 마을로 이사를 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 작은 오두막집을 빌렸다. 하이디는 산이 그리웠다. 그러나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다. 그녀는 수업 내용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페터는 거의 학교에 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하이디는 그에게 물었다. “왜 오늘 또 학교에 오지 않았니?” “썰매를 멈출 수가 없었어.”라고 페터는 거짓말을 했다. “썰매가 마을을 곧장 지나가 버렸거든. 난 내릴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학교에 못 갔어!” “만약 또 그러면 나한테 크게 혼날 줄 알아라!”라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p. 62-63** 하이디와 페터가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할머니는 몹시 아팠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하이디는 할머니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그녀는 페터가 읽기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가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할머니는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 하이디는 페터에게 말했다. “넌 읽기를 배워야 해. 그러면 할머니께 책을 읽어 드릴 수 있어.” “난 못 해.”라고 페터가 대답했다.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하이디가 말했다. 페터에게 읽기는 아주 힘들었다. 그러나 하이디는 클라라한테서 받은 책으로 그에게 알파벳을 익히게 했다. 그러자 그는 단어 몇 개를 읽기 시작했다.

몇 주 후에 그는 할머니께 책을 읽어드릴 수 있었다. 온 마을사람들이 하이디가 페터에게 글을 읽게 했다는 얘길 들었다. 모두 큰 감명을 받았다.

## **[ 제 5 장 ] 산 위의 기적**

**p. 68-69** 봄이 오자 산은 다시 푸르게 바뀌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산 위의 오두막으로 다시 이사를 했다. 어느 날 페터가 하이디에게 편지를 가져왔다. 그것은 클라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클라라와 할머니가 6주 후에 여기에 온대요!” 하고 하이디가 소리쳤다. 그녀는 아주 신이 났다. 그러나 페터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고 질투가 났다.

6월 어느 날 아침, 하이디는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휠체어에 탄 클라라를 밀고 있었다. 다른 남자는 그들의 짐을 운반했다. 할머니는 말을 타고 그들 뒤를 따라 왔다.

**p. 70-71** 클라라와 할머니는 산에 있는 하이디 집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아, 하이디.”라고 클라라가 소리쳤다. “내가 너와 함께 저 언덕을 달릴 수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디든 너를 밀고 갈게.”라고 하이디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잔에 담긴 염소젖과 구운 치즈를 대접했다. 그들은 야외의 부드러운 바람과 햇살 속에서 즐겁게 먹었다.

진초 다락방에 있는 하이디의 침대를 보자 클라라는 이렇게 말했다. “잠들면서 별들을 보는 건 틀림없이 멋진 거야.”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다. “마을에 머무시는 동안 클라라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머니는 동의했다. “이곳에 머무는 게 클라라의 건강에 아주 좋을 것 같군요.”

**p. 72-73**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페터에게 염소들에게 가장 좋은 풀을 먹이라고 말했다. 염소들은 클라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아주 좋은 우유를 만들어 냈다.



클라라가 그들과 머무는 2주 동안 할아버지는 그녀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일어서면 그녀의 다리와 발이 몹시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좀 더 오래 서 있으려고 노력했다.

하이드는 할아버지에게 클라라를 산꼭대기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클라라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이드는 흥분해서 페터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페터는 화가 났다. 그는 클라라가 가버리길 바랐다.

**p. 74-75** 다음날 아침 페터는 오두막으로 올라갔다. 그는 밖에 놓인 텅 빈 휠체어를 보았다. 그는 화가 나서 휠체어를 발로 찼다. 휠체어는 산허리 아래로 굴러 내려갔다. 페터는 너무 두려웠다. 그는 염소를 데려가지도 않고 도망쳤다.

할아버지와 하이드는 밖으로 나와서 휠체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방으로 휠체어를 찾아 다녔다. 할아버지가 산 저 아래에서 그것을 보았다. 휠체어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완전히 망가졌다. “바람이 분명해요.”라고 하이드가 말했다. 클라라는 울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산 위에 설데 올라가지 못할 거야.” “괜찮단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올라가마. 그나저나 페터는 어디 있는 거냐?”

**p. 76-77**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안고 산 위로 걸어 올라갔다. 염소들이 그 뒤를 따라 갔다. 할아버지는 페터를 보자 염소들을 잊고 갔다고 그를 꾸짖었다. “클라라의 휠체어를 보았나?”라고 할아버지가 물었다. 페터는 그저 머리를 흔들며 “아니오.”라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산꼭대기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점심 식사 후에 하이드는 가장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도록 클라라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페터와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어.”라고 하이드가 말했다. 그들은 클라라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한 발짝 걷기 시작했다. “나 걷고 있어!”라고 그녀가 소리쳤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는 클라라가 걷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p. 78-79** 그 다음 주 내내 클라라는 걷는 연습을 했다. 할머니가 산 위에 올라왔을 때 클라라는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할머니는 클라라가 걷는 걸 보고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의 친절과 보살핌이 그녀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신의 햇살과 산 공기도 도와주었고요.”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클라라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어서 와서 그들과 그 놀라움을 함께 하길 바랐다.

세제만 씨는 거의 오두막에 다다랐다. 그는 곧 클라라와 하이드를 만나길 고대했다. 클라라는 아버지에게 줄 깜짝 소식을 갖고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가 오두막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보았다. 그때 클라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걸어갔다. 세제만 씨는 놀라서 외쳤다. “이건 기적이야!” 세제만 씨는 할아버지와 하이드에게 클라라를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p. 80-81** 할머니는 페터가 오두막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애야, 왜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냐?”라고 할머니는 물었다. “제 생각엔 페터가 클라라의 휠체어를 산 아래로 날려버린 바람인 것 같군요.”라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머니는 페터를 옆으로 데려갔다. “네가 한 일은 아주 나쁜 짓이 있어. 하지만 난 네 기분을 이해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네가 늘 우리를 기억해 주길 바라.” 페

터는 기분이 좋아졌다.

나중에 세제만 씨는 할아버지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물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 “제가 죽고 나면 하이디를 돌봐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세제만 씨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p. 82-83** 세제만 씨 가족이 떠날 시간이 되었다. 클라라는 슬펐다. 그러나 하이디는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곧 여름이 다시 올 거야. 그러면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릴 만날 수 있어.”

하이디는 산에 서서 친구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센 박사가 마을로 살러 왔다. 그는 오두막을 샀고, 겨울에 할아버지와 하이디와 함께 살았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하이디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돌봐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이디는 마을에서 또 한 번의 행복한 겨울을 보냈다. 주위에는 그녀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득했다.